

老人病의 특징과 問題點

◇... 노인이라 의학적으로는 인체 모든 세포의 노령화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근육이 감소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등의 신체 외형적인 변화가 생긴다. 기며, 가는 귀가 먹고, 노안이 되고, 울적해지는 등, 성격이 변하는 등의 생리학적 변화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뇌·척수·신경·근육 등의 신경계...의 세포는 다른 장기에 비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기능이 저하되는...고령자가 될수록 질병이 자연발생하기...쉬워 노인병에서는 신경계 질환이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노인에 생기기 쉬운 신경계 질환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뇌 질환

◆뇌혈관 질환: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한 최근 조사부의 발표에 의하면 뇌졸중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바소위 중풍으로 일반인에 알려져 있는 뇌졸중은 관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동맥경화증·당뇨병 등은 빈발할 뿐 아니라 혈관벽은 신축력이 감소되어 뇌혈관은 쉽게 막힐 수도, 터질 수도 있게 된다. 즉, 일과성 뇌허혈·뇌경색·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일과성 뇌허혈: 일과성 뇌허혈이란 뇌신경조직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반신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워 쓰러지게 되는 등의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당뇨·동맥경화가 있는 노인환자에서 특히 경부디스크 또는 경부척추증 환자에서 발생하기 쉽다. 몇몇에 걸쳐 일과성 뇌허혈이 반복되다가 실어증, 반신마비 같은 증상이 수개월 혹은 수년 지속되는 본격적인 뇌혈전증으로 진행하기도 함으로 일과성 뇌허혈 환자는 철저한 예방을 요하는 데, 의사의 감독하에 고혈압·당뇨같은 위험인자의 관리와 예방적 약물요법이 필요하며 갑자기 추운곳에 노출되면 안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특히 변비로 인해 화장실에서 무리한 힘을 주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②뇌졸중: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대별하며, 뇌경색 특히 뇌혈전증은 서서히 발병 진행되는 반면, 뇌출혈은 발병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언어장애(실어증), 반신불수라고도 하

는 편마비들이다. 젊은 환자에 비해 노인의 뇌졸중의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령자일수록 뇌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여도 뇌압상승이 심하지 않아 걸음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노인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출현할 정도의 뇌졸중이 생기면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예후가 불량하다는 말이 된다.

둘째로는, 흔히 다발성, 양측성으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 결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노실금 같은 배뇨장애, 기억력 소실, 판단력 저하, 갑자기 격앙하거나 혹은 우울증에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편측마비가 있는 환자에서 어느날 갑자기

기 때문에 육창이 빈발하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배뇨장애가 많아 방광염도 발생함으로 치료가 어려운 것이다.

◆치매: 소위 노망이라 옛부터 알려진 노년성 치매는 질병이라기 보다는 생리적 현상이라 볼 수도 있는데, 뇌조직의 위축 및 소실, 특이한 퇴행성 병리학적 변화를 보인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70세 전후해서 증상이 뚜렷해지는데 기억력의 감퇴, 기능저하, 운동기능의 저하, 성격의 변화가 심하며 대·소변을 못가리고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매를 유발시키는 질병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같은 퇴행성 질환, 다발성 뇌졸중, 알콜중독 등이며, 이와 수두증, 영양결핍, 갑상선

腦卒中은 死亡原因중 가장 큰原因

기 연하곤란, 반대측 마비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기존병변의 반대측 뇌에 재발하였다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양측성 병변으로 재발되는 경우는 말을 못하고 사지를 못써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소위 식물인간과 같은 심한 경우부터 소위 노망이라 부르는 치매등과 같은 증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알고있는 수족을 떨고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이 편측으로 생기는 경우 고령자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그원인이 된다.

셋째로는 재발이 되기 쉽고 치료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령자에서는 정상 뇌세포 자체도 노화되어 있고 빈혈·폐질환·동맥경화증과 같은 불리한 인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면역기능이 저하로 폐렴과 같은 위험한 염증이 잘 생기고 피부나 근육의 영양상태, 혈액순환도 양호하지 못하

기능 저하같은 내분비 이상등 매우 다양하다.

비교적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되는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병같이 치료가 잘되지 않는 치매가 있어 전문의사의 진찰과 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알콜중독, 영양결핍 등이 치매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외출하였다가 집을 못 찾아 갈 수도 있으므로 치매란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퇴행성 질환: 퇴행성질환들의 공통된 특성은 서서히 증세가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그러나 쉬임없이 나빠져 간다는 데 있다. 따라서 환자자신이나 가족들이 증상이 언제 어떤식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임상양상이 양측반신에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노인에 있어서 뇌에 생기는 퇴행성질환중 대표적인 것으로 파킨슨병, 치매를 유발시키는 알츠하이머병, 진행성상해마비, 소뇌·교위축등을 들 수 있다.

파킨슨병은 흑질의 퇴화등에 의해 도파민이란 물질의 감소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가만히 쉬고 있을때 수족을 떨며, 온몸이 굳어지고, 행동을 빨리할 수 없어지고,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이외에 얼굴에 기름이 많이 끼고 대소변 보기가 불편해진다. 파킨슨병은 다른 어떤 퇴행성 질환보다 많은 환자가 있으며, 치료하면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 집에서 또한 수족을 떠는 병중 파킨슨병 이외에 전혀 다른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병들, 예를들면 갑상선기능 항진증, 양성 진전증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한다.

진행성상해마비의 특징적인 증상은 양안의 하방 및 상방주시가 안되고, 신체의 균형감을 잃어 잘걸지 못하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파킨슨병의 증세가 더불어 나타난다.

◆뇌종양: 노년층에서는 전이성뇌종양이 많다. 폐·유방·소화계·전립선등이 일차병소로부터 전이되어 온다. 뇌종양일수록 암의 일차 병소가 발견되기전에 뇌로 전이된 것이 먼저 발견될 수가 있으며, 전이된 종양 덩어리는 관찰되지 않지만 암의 특수한 효과 때문에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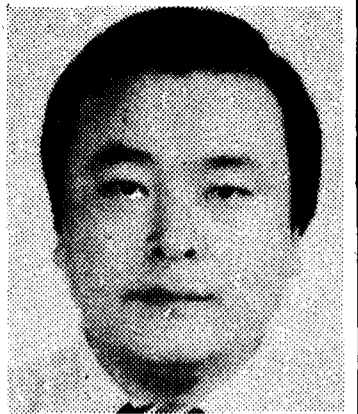
나는 소뇌변성같은 증세가 먼저 발견되기도 함으로 주의를 요한다.

◆감염성 질환: 뇌막염이나 뇌염은 소아일수록 많으나 노년층에도 드물게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알콜중독이 있는 노년층일수록 면역기능이 약하여 뇌막염이 생기기 쉽고 기관지 확장증같은 폐질환을 앓을 때 뇌농양이 생기기도 한다.

노인에서는 경부척추증이 많기 때문에 뇌막염때 생기는 경부근육의 강직과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과거에는 매독같은 성병에 의해 신경매독이 많았으나 요즘은 드물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신경매독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요즘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척수 질환

척수질환은 뇌보다는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척수를 둘러



金明浩

(漢陽醫大 神經科敎수)

老人의 경우 腦卒中, 파킨슨病 등 再發率 많아 予防 및 治療 대책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싸는 척추에 퇴행성변화가 생겨 각종 질병들은 많아진다.

◆퇴행성 질환: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아급성 결함성 척수 변성증등이 대표적 질병이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상지에서는 특히 수근의 근위축을 보이면서 쇠약해지고, 하지는 근육이 긴장되어 뻠뻠해지면서 마비를 보인다. 허의 근육이 위축되고 허를 내밀면 파르르 떨리기도 한다. 빠른 속도로 온몸의 근쇠약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4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아급성 결함성 척수변성증은 알콜중독 환자처럼 영양이 결핍되기 쉬운 환자에서 생길 수 있으며, 하지의 위척각각의 소실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여 걸을때 잘 쓰러지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60세가 넘으면 섬유화 증가, 수초탈락, 축색변성등에 의해 운동 및 감각신경의 기능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인생을 통해 얻은 각종 외상의 영향, 내과적 질병등에 의한 대사성 장애등이 신경 및 근육의 기능저하를 가속화 시킨다. 하지말단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근쇠약·위축·동통·저리는 듯한 이상감각·남의살 같아지는 감각소실·근경련·변비나 노실금같은 자율신경 장애같은 증상을 보인다.

고령자에 많은 말초신경계 질환을 살펴보면, 당뇨병이나 알콜중독 여러가지 종류의 알콜결핍의 합병증이 생기는 말초신경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해 생기는 신경 근부위 질환이 가장 많고, 헤르페스 조스터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부에 수포와 함께 동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기업 '동해다시마'

- 식이조절, 체질개선의 필수건강 보조식품 -

다시마精



다시마精은 다시마 특유의 영양소가 결집된 특수부분만을 엄선, 채취, 효소화하여 정제로 제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시마精은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45여종의 미네랄과 특수성분인 알긴산 섬유질 및 고알카리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성인병 식이조절을 위한 필수 자연건강식품입니다.



(주) 동해다시마

서울·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5-1 (선형B/D 3층)
자료상구처 및 상담실: TEL (02) 631-3522~5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시마 300조각 자료봉투
무료 우송해드립니다